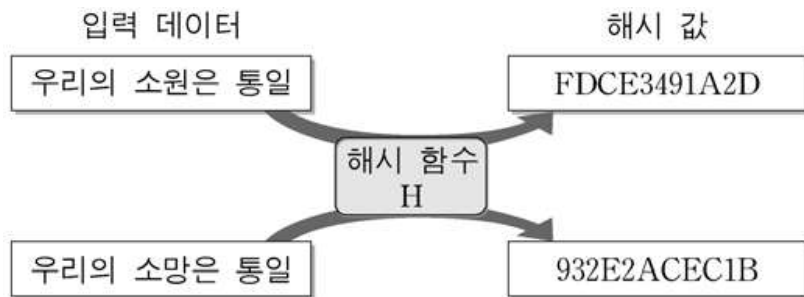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교육

# 보충수업

[ 2016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 기술 ]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 기술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전자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 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x$ 에 대하여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수식을  $H(x)=k$ 라 할 때,  $k$ 를 해시 값이라 한다. 이때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해시 함수의 입·출력 동작의 예]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 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일방향성이란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해시 값  $k$ 가 주어졌을 때  $H(x)=k$ 를 만족시키는  $x$ 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회피성이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x, y$ 에 대해서  $H(x)$ 와  $H(y)$ 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것을 충돌이라 하고, 이때의  $x$ 와  $y$ 를 충돌쌍이라 한다. 충돌회피성은 이러한 충돌쌍을 찾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 해시 함수는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 함수  $G$ 가 모든 경매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

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로써 온라인 경매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논스 :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

## 1. 밑글의 ‘해시 함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 ②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 ③ 입력 데이터  $x$ 를 서로 다른 해시 함수  $H$ 와  $G$ 에 적용한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은 언제나 동일하다.
- ④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H(x)$ 와  $H(y)$ 가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 ⑤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어떤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전송하면 수신자는 그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 밑글의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 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으로부터  $x, y$ 를 복원할 수 없다.
- ② 입력 데이터  $x, y$ 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 ③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 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 ④ 입력 데이터  $x, y$ 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 ⑤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과 ㉡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한 결과 값이 같으면 이를 충돌이라고 한다.

# 보충수업

3. (가)에 따라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이트에 회화 작품 △△이 출품되어 A와 B만이 경매에 참여하였다. A, B의 입찰가와 해시 값은 다음과 같다. 단, 입찰 참여자는 논스를 임의로 선택한다.

| 입찰 참여자 | 입찰가 | 논스의 해시 값 | '입찰가+논스'의 해시 값 |
|--------|-----|----------|----------------|
| A      | a   | r        | m              |
| B      | b   | s        | n              |

- ① A는 a, r, m 모두를 게시 기한 내에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해시 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
- ③ m과 n이 같으면 r과 s가 다르더라도 A와 B의 입찰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A와 B 가운데 누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는지는 r과 s를 비교 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B가 게시판의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도 있으므로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 2009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사회 ]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 ~ 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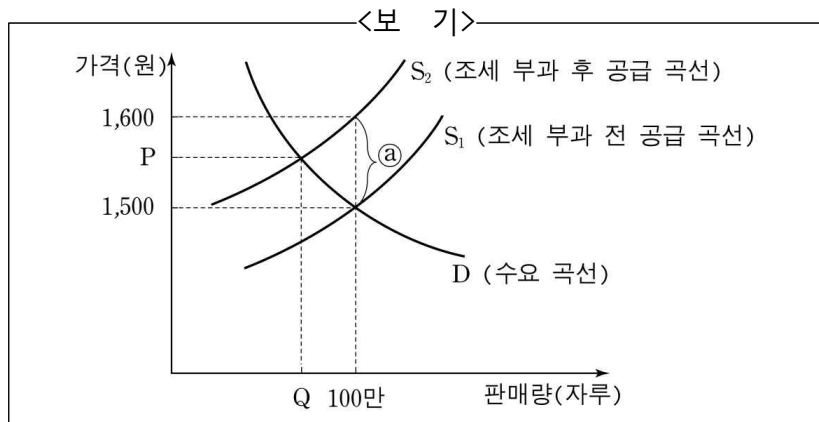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보충수업

## 4.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 5.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을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sub>1</sub>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 6.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 [ 2014학년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비시행 - 국어B : 인문 ]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즉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다.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이다. 휴대 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므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의 지식 중 수학의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우리가 2에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도 ‘지금의 나’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론을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 보충수업

## 7.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게는 확실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②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③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하여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④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 ⑤ 대립하는 두 이론의 장점만을 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 8. 위 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 ㄴ.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 ㄷ.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 ㄹ.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 ㅁ.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 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동등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통 속의 뇌'에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 내고 있다. 가령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환상이다.

- ①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군.
- ②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 ③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가 말한 '악마'에 해당하겠네.
- ④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이겠어.
- ⑤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군.

## [ 2009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현대소설 ]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김만호 씨는 면 농회 근무 3년 만에 서른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다.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인 면장이었을 거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그가 가장 면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젊은 면장으로서는 이 제주 섬에서 가장 도사(島司)의 신임을 얻은 면장이 되었다. ㉡ 재종숙의 말투는 점점 과격하여 갔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무리 뼈에 사무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쯤이면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해 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구적인 시민상'을 주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권력의 종노릇 하는 데 선구적이었어. 그건 김만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여. 신문사 문제만도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여. 그 사람이 상을 타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건데,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여? 안 되여.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였다. 바로 교장 어른을 상대하여 말하는 투였다.

그와 헤어져 거리로 나오자 이번에는 교장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역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재종숙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 보충수업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육십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란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세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간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지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냐 말일세.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히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궂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현길언, 「신열(身熱)」 -

##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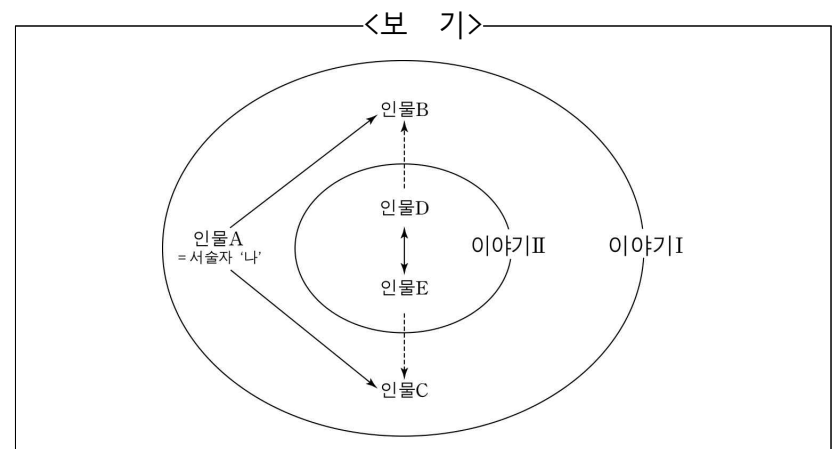
## 11.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김만호'는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다.
- ② '김만호'와 '강 목사'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 매우 다르다.
- ③ '교장 어른'은 '강 목사'보다는 '김만호'의 입장에 서 있다.
- ④ '나'는 '재종숙'과 '교장 어른'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 문제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과거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 :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
- ③ ㉢ : 관련된 사안이 예민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 ④ ㉡ : 상황을 들어 당시 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⑤ ㉢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실망하고 있다.

## 13.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 II 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 II 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 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 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 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 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 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 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 보충수업

[ 201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 현대시 ]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  
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허적 :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A]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B]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C]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15.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해를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줬.

# 보충수업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㉓와 ㉔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㉔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 [ 2013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언어학 ]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ㅌ,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 ㅊ’이나 ‘ㄱ, ㅋ, ㆁ’이 구개음인 ‘ㅌ, ㅊ, ㆁ’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덕’나 ‘타터’를 ‘자져’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만이 ‘뎡(天)과 ‘천(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닌, 덕, 뎡, 듀’와 ‘티, 탁, 터, 토포, 튜’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딛, 톡’이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딛, 톡’이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ㅌ,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ㅌ, ㅊ’은 원래 치음이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ㅌ,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ㅌ,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차, 쳐, 초, 주’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차’, ‘저’와 ‘쳐’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었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ㅣ̣’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㉔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ㄱ’과 ‘ㅣ’가 합쳐진 ‘ㄱㅣ’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㉔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반모음 ‘ㅣ̣’: ‘ㅑ, ㅓ, ㅕ, ㅗ’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를 만드는 소리.

# 보충수업

## 17.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쳤고 형태가 바뀌었다.
-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의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 1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덕(저) 네 아드<sup>ㄹ</sup> 어덜어늘(어질거늘) 내 아드<sup>ㄹ</sup>리 비록 디라도(말이라도) ..... ㅍ이 네 아드<sup>ㄹ</sup>를 내티쇼셔(내치소서)  
-『월인석보』중에서 -

㉡ 그디 살고 니가 죽으면 저 ㅈ식을 키울 거슬 니가 살고 그디 죽어 저(저) 자식 엇지(어찌) 키잔 말고 이고 이고 모진 목숨 ..... 어린 자식 엇지홀기(어찌할까)  
-『심청전』중에서 -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 ① ㉠의 '덕'과 ㉡의 '저'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 ㉡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 ② ㉠의 '덕', '덜',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의 '저',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ㄷ'이 나타나지 않고 '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은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 ④ ㉡의 '저'와 '저'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ㅈ'을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 ⑤ ㉠의 '어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군.